

# 새로운 방법의 모색, 한국미술사학의 과제

## 홍선표\*

- I. 머리말
- II. 융복합 시대와 한국미술사학의 진로
- III. 한국미술사학의 과제
- IV. 맺음말

## I. 머리말

식민지 근대학문으로 성립된 한국미술사학이 1960년 8월 15일 학회를 조직하고 자립적인 발전을 도모한지 반백년이 지났다.<sup>1</sup> 고유섭(1905-1944)의 타계로 미술사학 전공 출신자 한명 없이 동인회 형태로 시작한 한국미술사학회가 이제 교수·박사급 정회원 139명의 학술단체로 크게 성장했으며, 연구물 산출량에서도 양적·질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반세기 사이 연구 환경의 변화는 문명사적 전환이란滄桑의 극변에 가까운 것이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혁명적 발전으로 사유와 지각의 융합 혹은 호환이 사이버공간에서 현실화됨에 따라 종래의 지식 개념은 물론 그 생산 및 소비 방식에 획기적인 변모를 초래하고 있으며, 기존 학문 체계의 변동을 불러오고 있다.<sup>2</sup>

\*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

<sup>1</sup> 한국미술사학회 역사는, 한국미술사학회 편, 『한국미술사학회 50년사』(도서출판 고호, 2010) 참조.

<sup>2</sup> 유전공학과 나노기술, 로봇공학의 급속한 진전은 인간지능을 압도하는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지닌 인공지능의 출현을 가능케 하고 그렇게 되면 만물의 영장이던 인간종의 위상에 근본적인 변화와 함께 그 진화의 역사가 폐기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예상도 나오고 있다.

미술사학이 속해 있는 인문학은 근대 자연과학의 확립에 수반되어 연구와 탐구행위의 ‘인문 과학’으로 형성되면서 인간의 사유와 표현과 삶의 현상들을 분석과 증명의 대상으로 분과화하여 확실성과 엄밀성, 객관성, 보편성을 지향하는 근대적인 지식체계 구축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인문 과학’의 분과화에 따른 지나친 학문적 구획화로 우리의 삶을 전체적·총체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장벽이 되고 있다. 더구나 우리의 삶과 세계의 종합적 표현이며 재현으로, 이성과 감정, 정신문화와 공간 및 물질로 구성된 복합적 산물이며 직접적인 증거물인 미술을 대상으로 한 미술사학이 문헌학에 기반을 두고 전개된 문·사·철 중심 ‘인문 과학’의 소분류 학문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시각적으로 재현된 형상인 이미지(像)를 비지성적으로 보거나, 문자의 하위 또는 부차적 가치로 본 문자의 배타적 지배와 분과화의(이성과 감각, 정신과 물질, 본질과 현상 등을 분리하는) 이분법적 위계질서에서 연유된 것이 아닌가 싶다.<sup>3</sup> 이미지도 문자와 마찬가지로 사유 수단의 형식이며 체계이면서 의사소통의 매체로 문자 못지않게 인간의 인지 및 감각 경험과 구조에 심층적 변화를 초래하였고, 인류 문명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촉발하거나 그 변천을 반영해 왔다.

알려져 있듯이 형상을 통해 의사소통과 정보 및 의미 전달, 세계 인식과 투영 및 표출의 기능을 지닌 이미지는 문자 보다 훨씬 앞서 문화 생산과 소비의 주류를 이루었다. 문자 발생 후에도 존재와 인식의 메타포적 대체관계를 형성하는 유사체와 의미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근대 이후 문화는 점차 시각화 되었고 이제 영상매체가 현대인에게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시각적으로 빨리 느끼는 매체를 선호하게 됨에 따라 시시각적 자극이 청각적 자극에 비해 580배나 많은 정보를 처리한다고 말했던 맥루한도 예견했듯이 형상·도상·영상기호가 언어기호를 능가할 것이라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현대 문화예술 영역의 중심 코드가 ‘언어학적 전환’에서 ‘기호학적 전환’을 거쳐 최근 ‘이미지적 전환’, ‘아이콘적 전환’, ‘그림적 전환’과 같은 ‘시각적 전환’으로 규정되기도 한다.<sup>4</sup>

자연과학에 의한 ‘인문 과학’의 분과전문성에서 이제 첨단 기술과학에 의한 정보화와 융복합 시대, 視문화 시대를 맞아 인문학도 미술사학도 혁신적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예술 및 기술과 인문학이 결합된 미술사학은 기존의 파인 아트적인 ‘인문학의 꽃’에서 정신문화와 시각문화, 물질 문화를 포괄하는 통섭적 지식 패러다임으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sup>3</sup> 시각적으로 재현된 형상 또는 외적으로 표출되고 사물화된 像으로서의 이미지 개념과 범주에 대해서는, 원승룡, 「상과 그림의 존재론」, 『범한철학』 55(2009.12), pp. 427-434 참조. 이미지와 문자의 권력 관계에 대해서는, 한철, 「이미지, 문자, 권력」, 『취히너와 현대문학』 34(2010.6), pp. 301-318 참조.

<sup>4</sup> 김윤상, 「이미지학의 정립을 위한 이론적 토대연구」, 『카프카연구』 19(2008. 12), pp. 105-107 참조.

방법은 어떤 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대책으로, 우리들은 더 좋은 삶을 위해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하고 사용한다. 새로운 연구와 지식은 새로운 방법에 의해 탄생하며 방법이 정제되면 연구도 지식도 정제된다. 학문의 존립과 발전을 위하여 방법의 논의는 필수적이며, 이러한 방법론은 새로운 시대적 문제의식으로 기존의 방법을 성찰하고 抱越하는 방향에서 궁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방법론은 누가 별도로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 누구나 방법론의 발전에 책임을 나누어 져야 하는 것이다.

## II. 융복합 시대와 한국미술사학의 진로

산업화 시대에 구축된 '인문과학'이 현재 맞고 있는 '위기'는 내·외부적으로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sup>5</sup> 무엇보다도 문명사적 대세인 정보화와 융복합 시대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수구적 태도에서 초래된 것이 아닌가 싶다. 정보화시대는 컴퓨터와 디지털화 등의 첨단 기술과학에 의해 도래되었으며, 이에 따른 지식 생산과 소비 방식의 변화로 '융합'과 '통섭'을 화두로 한 새로운 학문 체계와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생산력 창출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정보화로 집약되는 기술과학의 가속화 경향과 복합문화화의 경향이 일반화 되고 필연화되는 환경에서 기존의 근대적인 분류와 체계로는 점차 생존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sup>6</sup>

인문학은 자체로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고와 방법을 성찰하는 본성을 통해 우리 삶의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학문의 구심점을 제공할 수 있어야 생명력을 지닐 수 있다고 본다. 근대적으로 세분화된 전공과 파편화된 지식 생산 구조로는 과거와 지금의 삶의 경향과 융복합 또는 間학문적 영역을 사유하기 힘들다. 문자로 기록된 문헌에 의존하는 문·사·철 중심의 인문학으로는 더욱 그렇다.

이와 같이 정보화와 융복합 시대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한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

<sup>5</sup> 인문학의 위기는 대체로 신자유주의 시대 세계화의 무한경쟁적 시장논리에 의한 실용성 중심의 외부적 요인과, 현실 문제와 유리된 학문의 귀족화·전공화, 그리고 환원주의의 '분석적 병' 등의 내부적 요인으로 진단되고 있다. 이선관, 「인문학의 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강원인문논총』 18(2007, 12), pp. 203-226 참조.

<sup>6</sup>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10년 전에 집필한 홍선표, 「한국미술사인식들의 비판과 새로운 모색」, 『미술사논단』 10호(2000, 8), p. 304에서 “한국미술사가 21세기의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아 생존 경쟁력을 갖추면서 새롭게 구성되기 위하여 전공 학문들을 유지하되 기존의 구획적 분과학문 지식 생산체계의 간극을 뚫고 학제적·협업적 방향으로 추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여기서는 그 동안의 문명사적 진화와 변화의 심화에 따라 진로 문제를 좀 더 강조하여 논의 한다.

과 함께 전통적인 학문 분류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대두되어, 많은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통합하고 소통하기 위한 다학문적 또는 학제적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새로운 인문학이 모색되고 있다. '표현인문학', '문화인문학', '응용인문학', '사회인문학', '도시인문학', '탈경계인문학' 등이 그것이다.<sup>7</sup> 이들 新인문학의 대안들은 정보화와 융복합적 환경에서 인간과 세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통합적으로도 이해 가능하게 하는 지적 패러다임을 창출하고 제공하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변화된 사회 환경 속의 새로운 인간 규범과 공존을 새로운 기초 위에서 세우려는 현실적인 효용성과 실천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새로운 지식 유형은, 인간의 자기 이해와 인간이 세계와 관계를 맺는 방법적 틀이며 인간의 환경과 삶의 총괄적 개념인 '문화적 전체'로서의 '문화적 전환' 또는 문화학적 기획을 통해 주로 논의되고 있다.<sup>8</sup> '문화적 전체'란 고급과 교양적 개념으로서의 특권화·위계화된 분야적 문화로서의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고 소비한 정신적·물질적 산물과 방식의 총칭이며 집단적으로 구조화된 의미 및 지식으로, 그 (생명)환경을 하나의 유기체적 전체로서 보자는 것이다. '인문과학'의 세분화·전문화로 인한 분절적 사고(방법)와 파편화된 지식으로는 인간과

<sup>7</sup> 정대현 외, 『표현인문학』(깊은 샘, 2000); 김영건, 『표현인문학의 빛과 어둠』, 『신학과 철학』 3(2001, 12)pp. 211-228; 이상엽, 『문화인문학-인문학의 문화학적 기획』, 『해석학연구』 8(2001) pp. 117-153; 박여성, 『응용인문학의 문화학적 토대를 위한 구성주의적 제안』, 『텍스트언어학』 20(2006), pp. 115-142; 김상원, 『볼로냐 프로세스를 통해서 보는 실용인문학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인문학의 '문화적 전환'에서 문화산업까지』, 『독어교육연구』 30(2007, 8), pp. 353-375; 백영서, 『사회인문학의 지평을 열며-그 출발점인 '공공성의 역사학』, 『동방학지』 149(2010, 3), pp. 1-27; 김명림, 『사회인문학의 창안: 사회의 인문성' 제고, '인문학의 사회성' 발양을 향한 융합학문의 모색』, 『동방학지』 149(2010, 3), pp. 27-81; 유권중, 『비교인문학의 방법과 방향』, 『철학탐구』 27(2010, 8), pp. 1-27; 안상경·박범준, 『인간을 위한 도시재생과 응용인문학의 실천』, 『인문콘텐츠』 18(2010, 8), pp. 257-276; 김동운, 『창의적 미래 도시문화공간 구축을 위한 "도시인문학"의 학문적 기반 심화 연구 - 횡단의 세미오시스와 문화기호생태계 고찰-』, 『기호학연구』 27(2010, 8), pp. 297-328; 이준서, 『탈경계의 은유: 인터페이스-인문학의 지평 확장을 위한 제안』, 『브레히트와 현대연구』 23(2010, 8), pp. 223-247 등 참조.

<sup>8</sup> 1960년대에 영국의 버밍엄학파에 의해 새로운 지적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컬처럴 스터디즈(문화연구)'는, 인문과학의 중추적 분과인 문·사·철에서 연구주체의 새로운 확장과 통합적 연구 방법 및 영역으로 '문화론(문학)', '신문화사'(사학) '문화학(철학/독어어권)이란 이름으로 1990년대 후반 이후 대두되었고, 사회과학에서도 '문화적 전환'을 화두로 문화사회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명칭의 정의나 개념적 함의, 이론적·방법적 스펙트럼이 다양하여, 여기서는 문화 전체를 다루는 학이란 의미로 쓰기로 한다. 각 분야의 문화연구 동향에 대해서는, 이상엽, 위의 논문 pp. 117-153; 신용철, 『문화철학과 문화학』, 『철학탐구』 17(2005, 12), pp. 405-430; 송효섭, 『문화연구의 문화론적 지평』, 『현대문학이론연구』 27(2006, 9), pp. 5-22; 천정환, 『문화론적 연구의 현실인식과 전망』, 『상허학보』 19(2007, 2), pp. 11-48; 임상우, 『역사학에서의 문화적 전환-신문화사 대두의 사학사적 검토』, 『서강인문논총』 14(2001, 6), pp. 205-227; 마크 포스터(조지형 역), 『포스트모던시대의 새로운 문화사』(이대출판부, 2006); 최종렬, 『사회학의 문화적 전환』(살림, 2009) 등 참조.

환경의 전체적인 현상과 문제를 설명하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를 인간의 생명 활동 및 현상의 총괄적 개념에서 통합적으로 파악하지는 것이 아닌가 싶다. 다시 말해 부분적 전문성으로 유기적 전체를 통일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분과 학문의 구분을 넘어 상호 소통하며 횡단하거나, 다학문적 또는 간학문적 영역으로 혼합된 새로운 사유체계로 추구하지는 것이라 하겠다.

미술사학은 시각예술과 그 이미지를 대상화한 학문이다. 파노프스키에 의해 기반이 마련되기도 했지만 미술사학 자체가 일종의 간학문적이며 다학문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미술사학은 시각예술 현상을 역사적으로 이해하고 체계화하는 것인데, 그 대상물은 인지적·이념적·종교적·윤리적·미학적·정치적·사회적·경제적·기술적·재료적·공학적 등등의 요소와 방식으로 이루어진 혼합적 유기체이면서 융복합적 매체라 하겠다. 우리가 시각예술과 그 이미지를 통해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이 전체적 문화 활동의 소산이며, 따라서 미술사학 속성 자체가 문화학적이며 통섭적 지식 유형인 것이다.

이러한 미술사학이 서구에서 근대적인 분과 학문으로 성립된 것은, 예술이 중세의 종교를 대신하여 ‘숭배’되고 ‘신성화’되는데 있어 그 관념체계의 기반을 제공하고, 국민국가의 형성 및 성장과 결부되어 ‘국민’의 교양과 취미와 인격을 향상하고 정서를 순화하는 분야로서, 그 창조적 본질과 행동을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으면서 부터였다.<sup>9</sup> 미술은 지식인들의 엘리트주의와 고급 정신문화, 자유(자율)예술론 등과 결합하여 순수미술 개념을 탄생시켰고, 미술사학은 이들 가치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학문으로 구축된 것이다. 특히 지방분권주의에 의한 분열과 정치적 후진성, 시민계층의 미성숙 등을 극복 과제로 안고 있던 근대 독일에서 민족의 통합과 정신력 향상을 위해 1860년대에 대두된 국민문학사의 일국주의와 자국중심의 관점을 반영하여 ‘문화와 역사와 민족을 결합한 예술사를 진작시켰으며, 더 후진적인 근대 일본에 의해 국수적인 황국사관과 밀착된 국사형 미술사학으로 특수화된 바 있다.<sup>10</sup>

한국미술사학은 이러한 국수적인 일국주의 미술사학을 기반으로 식민주의와 반식민주의 사관의 길항관계를 통해 수립되었고, 1970년대 이후 개별 작품의 자율적 형식주의 양식분석 방법

<sup>9</sup> 松宮秀治, 『藝術崇拜の思想-政教分離とヨーロッパの新しい神』(白水社, 2008), pp. 109-173 참조.

<sup>10</sup> 松宮秀治, 위의 책, pp. 174-198과, 후지하라 사다오(藤原貞郎), 『동양미술사학의 형성과정에서 역사관·문화적 가치관』(안재원 역), 『미술사논단』 20(2005, 6), p. 360; 佐藤道信, 『明治國家と近代美術-美の政治學』(吉川弘文館, 1999), pp. 124-131 참조. 근대 일본은 ‘공공심’, ‘시민정신’, ‘공화주의’ 등과 결부된 서구 애국심(patriotism)의 지적 전통도 내셔널리티에 경도된 호전적·편파적 애국심으로 조성하여 주변국에 영향을 끼친 바 있다. 근대 일본의 애국심에 대해서는, 이즈하라 마사오(出原政雄), 『메이지 일본에 있어서의 애국심론의 형성과 전개』, 『한국문화』 41(2008, 4), pp. 59-71 참조.

을 토대로 급성장하여 대학의 전공 분야로 제도화되며 확산되었다.<sup>11</sup> 국사학의 일부로 우리 민족의 미적 창조력과 지혜와 재능을 역사적으로 이해하고 체계화하는 학문으로 확립된 것이다. 그리고 민족 문화의 '꽃'을 대상으로 '위대한 국사를 빛나게 하는 학문으로 위상을 높여왔다.<sup>12</sup>

지금까지 한국미술사학의 연구 경향과 관념은 이와 같이 고급 정신문화와 엘리트 민족의식과 결합된 예술숭배 사상과, 순수미술 개념 중심으로 형성된 근대 미술사학의 맥락에서 일국사로서 전개되고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문헌 텍스트 중심으로 구성된 국사학의 보조 학문으로 자리매김했었다. 이제 한국미술사학은 이처럼 신성시되고 특권화된 근대적 관념과 수법의 '예술'과 '민족의 한정된 틀과 테두리를 넘어 인간과 세계를 총괄하여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문화학적 시각예술 또는 시각문화사로 확장하여 더 폭넓고 풍부한 인간 이해와 세계 이해의 지식 유형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로를 모색했으면 한다.

미술사학 자체가 다학문적이며, 그 텍스트인 이미지는 회화나 조각, 공예·건축 처럼 질료적 수단으로 재현되고 물리적 공간을 점유하는 예술적 사물 및 형상을 포함하면서 문화적 가치를 지닌 시각적 인공물과 그 메시지를 포괄하는 융복합 매체로 다른 모든 것과 관계를 맺으며 지각되고 유통되는 것이다.<sup>13</sup> 따라서 미술사학은 시각적 창조활동의 현상 및 변화 규명과 함께 인간의 視문화적 시각활동도 다루어야 한다. 샤피로와 고프리히도 주장했듯이 이미지는 대상을 의미하는 지시적 기능인 기호로서 해석되는 기호학, 또는 세미오시스적 산출물로 기호현상학의 대상이면서, 하이데거나 가다머의 언설처럼 작품은 또 하나의 세계(존재)를 건립하는 '존재(세계)의 증대'이기 때문에 미술사학은 보여 지고 보는 대상인 작품 세계를 재발견하여 그 존재 의미를 완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sup>14</sup> 회화를 비롯한 시각예술과 시각문화로 재현되고 표현된 이미지의 생

11 홍선표, 「한국미술사인식들의 비판과 새로운 모색」 참조. 예술의 발전 이론과 예술의 발흥, 성숙, 소멸에 관한 학설은 이미 고대에 플라니우스가 표명한 바 있으며, 바자리도 이를 자신의 역사적 구조 속에서 재발견한 바 있으나 빙켈만은 이 이론을 개별적인 작품에 적용했다. 빙켈만에 의해 개별적인 작품의 감성적 체험이 기준이 되었으며, 예술의 특수성은 생명체와의 유비 속에서 유기적인 본질로서 파악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예술의 양식적 법칙성을 인식하고 미술품과 민족양식의 관계를 정초한 바 있다. 그리고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빌헬름과 리글 등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형식주의 양식 분석 방법론이 학파를 형성하며 주류를 이루었다. Xavier Barral I Altet, *Histoire de l'art*, 1996(吉岡健二郎·上村博譯『美術史入門』白水社, 1999, p. 11·26)참조.

12 안휘준, 『청출어람의 한국미술』(사회평론, 2010)이 그 대표적인 성과이다. 한국 미술의 독자성 또는 차이성에 대한 추구는 한국 미술사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보다는 하나의 연구 영역과 주제로서 계속 심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13 小林康夫·松浦壽輝編, 『イメージ』(東京大學出版會, 2000), pp. i-iii ; 피터 버크(박광식 옮김), 『이미지의 문화사』(심산, 2005) 참조.

14 원승룡, 앞의 논문, pp. 435-448 참조.

산 및 기능방식과 작용공간과 그것들의 역사적 지평과의 연관 속에서 이미지학의 정립도 시도되고 있으며, 인간의 심성과 지능을 학제적으로 접근하여 인간 지각의 생리학적이며 미학적인 능력과 작용을 다루는 영역으로 인간성 탐구에 획기적 전환을 마련하고 있는 인지과학이 전통적인 인문학과 철학 개념을 대체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도 있다.<sup>15</sup> 이러한 학제적 융합과 혼종적 간학문이 근대적으로 분과화되고 특권화된 지식 유형에 새로운 활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미술사학도 근대적으로 이루어진 고급 예술과 전통 미술 중심의 한정된 범주를 넓히고, 국사학 및 인문과학의 보조적이고 부차적인 위계질서에서 벗어나, 궁극적인 앎을 향해 융복합적인 문화학과 인지과학 등의 영역에서 새로운 구분과 연접에 의해 시각문화사나 이미지문화사로 확대 발전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미래의 연구자들을 위해 긴급하다고 본다.

### Ⅲ. 한국미술사학의 과제

한국미술사학이 근대적인 관념과 수법의 한정된 틀을 확장하고 개편하여 융복합시대의 지식 패러다임으로 거듭나기 위한 메타적 방법 모색과 결부하여 그 확대 발전의 이정표를 세우는데 필요한 몇 가지 과제들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 1. 연구 시야와 영역의 확장

알려져 있듯이 한국 미술사는 식민지 모국이었던 근대 일본에 의해 '조선미술사'로 탄생되고 서술되기 시작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근대 일본은 '동양의 맹주가 되어 서양 미술사와 대등하게 일본 미술사를 고대에서 현대(근대)까지 체계화했으나, 식민지 조선의 미술사는 일본적 오리엔탈리즘으로 차별하여 停滯性論을 적용한 전통 미술만으로 구성하였다.<sup>16</sup> 해방 직

<sup>15</sup> 김운상, 앞의 논문, pp. 105-132와 이유선, 「독서와 신경생리학-새로운 혼종적 인문학의 가능성 모색」, 『독일문학』 109(2009, 3), pp. 184-185 참조. 기존의 철학적 미학도 시대적 지형의 변화로 감각적인 실재와 이미지 전반을 다루는 새로운 학문 범주에 자리를 내주거나 아니면 근본적인 자기 변혁의 기로에서 예술적인 실천과 생활세계적인 실천이 상호 규정을 이루고 있는 시지각과 행동의 주도적인 모티브로서 생각되기 시작했으며, 문화학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수립하려는 방향으로 추구하고 지각학으로의 정립이 모색되고 있다. 김운상, 「지각학으로서의 미학-최근의 미학 논의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보충」, 『독일문학』 100(2006, 12), pp. 105-128 참조.

<sup>16</sup> 홍선표, 「동아시아 통합 미술사의 구상과 과제-동양미술론과 동양미술사를 넘어서」, 『미술사논단』 30(2010, 6), pp. 43-47 참조. 여기서 전통 미술은 근대 이전 시기의 미술을 편의적으로 포괄하여 지칭하는 것이다.

후 김용준(1904-1967)에 의해 한국인 최초로 고대에서 근대까지의 통사화가 시도되었지만, 일제 잔재의 청산과 민족미술의 수립이란 관점에서 근대기 미술을 “주권을 잃고 언어를 잃고 전통을 모조리 잃어버린” 암흑기의 식민지미술로서 “결코 조선(한국)미술이 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했으며,<sup>17</sup> 이후 ‘한국미술사에서 근대는 배제되었다. 근대를 일제의 강점에 의해 내재적 발전이 좌절된 시기이고 전통 미술이 쇠잔한 시기로 간주했기 때문이다.’<sup>18</sup>

이에 따라 한국미술사학은 근대 이전만을 주로 연구하게 되었고, 한국 미술사는 조선왕조 말기를 끝으로 종료되었다. 선사시대에서 지금까지 전개되고 있는 한국 미술의 역사를 식민주의 사관과 반식민주의 사관에 의해 근대 이전으로 분단하여 전통 미술사로 만든 것이다. 이러한古 미술 만의 ‘한국미술사’로는 한국 미술의 전체적인 변천상과 발전상을 설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계승과 청산을 통한 창작 방향의 역사적 과제를 제대로 견인할 수도 없다. ‘한국미술사에서 분리된 근·현대 미술도 평론가들에 의해 별도의 영역에서 주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한국 미술사의 역사적 단계성에 대한 인식 부족, 즉 과거 미술사에 대한 구조적 이해가 결핍된 상태에서 서술되어 ‘한국미술사’의 체계화된 맥락을 이룰 수 없는 것이다.’<sup>19</sup>

한국미술사학은 이와 같이 전통미술사와 근·현대미술사로 분리되어 있는 한국 미술의 역사전체를 함께 시야에 넣고 선사시대에서 근·현대까지의 통사화를 추구하여 온전한 ‘한국미술사’를 재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그리고 ‘한국미술사’의 통사화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패러다임에서의 실상적 구성도 긴요하다. 반식민주의 사관으로 형성된 국사학계의 내재적 발전론에 의거한 한국 미술사 연구 관점이 서구 발전을 모형으로 한 자국 중심의 내셔널리즘이란 비판과 함께 동아시아적 시각의 필요성이 미술사학계에서도 제기되고<sup>20</sup> 관련 연구도 증가되고 있으나, 근대 이후 일국적 국경으로 구획되면서 타자화된 동아시아 패러다임에 대한 인식은 아직 미진한 실정이다. 한국 미술사 연구가 사실과 부합되고 서구의 근대적 관념과 언어로 규정되고 표상된 ‘한국미술사’를 실상화하기 위해

<sup>17</sup> 金瑑俊, 『朝鮮美術大要』(을유문화사, 1949), pp. 269-270 참조.

<sup>18</sup> 홍선표, 「한국미술사의 근대와 근대성」 홍선표 편, 『동아시아미술의 근대와 근대성』(학고재, 2009), pp. 408-409 참조.

<sup>19</sup> 홍선표, 「한국회화사 재구축의 과제-근대적 학문의 틀을 넘어서」, 『미술사학연구』 241(2004, 3), p. 117과 「한국 근대 미술사」(시공사, 2009), p. 10 참조.

<sup>20</sup> 홍선표, 「한국회화사 연구 30년: 일반회화」, 『미술사학연구』 188(1990, 12)와 1997년 제21회 東京國立文化財研究所 國際研究集會에서 발표한 洪善杓, 「韓國美術史의 研究觀點と東アジヤ」 東京國立文化財研究所編, 『語る現在. 語られる現在: 日本の美術史學の100年』(平凡社, 1999), pp. 181-195 참조.

서는, 동아시아 패러다임의 전체상을 조망하고 구성하는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한국 미술사를 제외하고 중국과 일본 미술사 등을 한 곳에 모아 놓은 지금의 '동양미술사'로는 동아시아 패러다임을 사유하기 힘들다.<sup>21</sup> 그리고 한국 미술사를 배제에 가까운 정도로 축소시킨 서구의 '극동미술사'로도 그렇다.<sup>22</sup>

동아시아 패러다임은 한국을 포함하여 지리적 근린국으로 유·불·선 사상과 한자, 彩墨, 百工技藝의 문화 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共戴天'의 관계를 이루었던 한·중·일 동아시아 미술의 문화와 역사를 하나의 분석 단위로 권역화한 시각과 함께 '동아시아미술사'의 통합적 구상을 통해 인식될 수 있다고 본다. 선사시대에서 현대까지의 동아시아 미술의 변천상과 발전상을 세 나라 미술사의 통사적 지식을 취합하여 통합적으로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세 나라 미술사의 시기구분론을 비교 분석하여 통합 미술사의 통사적 구성 방법을 추구해야 하며, 연대기적 흐름과 함께 변화상의 공통적 내용을 단위화하고 이를 단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조형 활동이 태동된 원시 단계에서 시작하여 작품의 제작 및 소비와 관련하여 형성된 미술의 주제적·기능적 단위가 문화 담당층의 사회사적 변동과 결부하여 발전해 온 과정을 시대성으로 단락화하여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나라의 역대 왕조 또는 정권은 이들 단위 요소를 추진한 단계적 유형 또는 유파로서 다루고, 그 안에서 유파의 시기별·분파별 양상을 기술해야 일국사적 서술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단위별 유파적 성향과 경향을 포괄하는 미술사적 용어나 개념을 찾아내는 것도 앞으로의 과제이다.<sup>23</sup>

자국 중심의 이념적 대상물이 아닌 사실로서의 동아시아 미술사를 통합적으로 구축하는 과제는 단 기간에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분야별·주제별 연구를 장기적으로 축적하고 종합하는 연구 영역으로 새롭게 설정해야 하며, 특히 세 나라의 미술사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거나 유기적으로 인식하는 統籌的인 광역적 시각 및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동아시아미술사'는 또 하나의 미술사로서 연구 영역과 지식 영역의 확장뿐 아니라, 자국 미술사와 세계 미술사의 이해 수준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한국 미술사 연구 분야를 이루고 있는 회화·조각·공예 건축은 미술대학의 근대적인 분과화와 결부하여 전공화된 것으로 지나치게 구획된 전문화로 인해 상호 유기적이고 복합적인

<sup>21</sup> 홍선표, 「동아시아 통합 미술사의 구상과 과제」, pp. 49-51 참조.

<sup>22</sup> 김홍남, 「서면 리의 『동양미술사』 제 5판 출판에 부쳐」 『미술사논단』 1(1995, 6), pp. 301-311 참조.

<sup>23</sup> 주 20과 같음.

제작 활동과 현상들을 분리하여 파악함으로써 한정적으로 인식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근대적으로 분류된 주류 분야에 의거하여 연구되면서 ‘백공기에’의 다양하고 복잡했던 미술사가 이들 영역 중심으로 유형화되어 구성되는 한계를 보이기도 한 것이다.

이들 회화·조각·공예·건축 분야를 포괄하여 원시미술에서 현대미술까지의 변천을 고대·중세·(근세)·근·현대 등으로 단계를 설정하고 거대 시대사를 통한 공시적인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조형 활동이 태동된 원시 단계에서 시작하여 미술의 기능적·장소적·주제적 단위가 문화 제작 및 소비층의 사회사적 변동과 결부하여 墓葬미술·종교미술·궁중 및 官衙미술·文士미술·市井미술·대중미술 등으로 변천해 온 과정을 시대성으로 단락화하여 추구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겠다.<sup>24</sup> 이러한 연구 분야의 개편은 장르별 형태와 기법에 의존한 연구 모델에서 미술을 조성한 복합적인 제반 문화와 사회 현상들과의 역동적인 결합 양상을 공시적이고 구조적인 다차원적 관계에서 체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학문사적 학설사적 성찰과 새로운 시대적 과제와 결부된 문제의식으로 연구 영역과 주제를 확장하고 창안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양한 조형적 형식으로 재현된 산물과 제작자 뿐만 아니라, 후원자와 연구자, 수용자 등의 수집 및 전시, 감식, 비평, 그리고 이들 관련 제도와 행위, 이론 및 담론을 포함하여 물질로 외현된 이미지와 시각문화 전반을 영역화·대상화하는 문제를 확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sup>25</sup> 작품/이미지는 다양한 흔적들의 총체인 상호텍스트성으로서의 형식 및 의미와 함께 그것의 생산과 중개, 활용의 전반적인 컨텍스트와 작용력과 이에 대한 개념과 이론 및 해석들 까지 주제화하여 역사적으로 분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미술은 그 자체가 새로운 소재와 새롭게 상호 융합된 미디어로 확장되고 다양화되기 때문에 이미지와 시각적인 것의 담지체로서 언어/문자 텍스트와 함께 인류 문화를 구성하고 주도한 기호체계이며 핵심 매체라는 인식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좀 더 필요한 것은, 우리가 연구의 주체이면서 사고의 주체로서 연구 주제와 대상을 창조하고 창안하려는 문제의식이 아닐까 싶다.

<sup>24</sup> 이러한 항목은 크레그 클루나스 교수가 *Art in China*, Oxford University Press, 1997(임영애·김병준·김현정·김나연 옮김, 『새롭게 읽는 중국의 미술』, 시공사, 2007, 1)에서 미술을 연대순이 아닌 미술품이 만들어진 사회적·경제적 배경을 기반으로 분류하여 제시한 것을 참조한 것으로, 부분적으로 명칭을 바꾸고 이를 좀 더 발전사적 맥락에서의 단계화를 염두에 두고 설정하였다. 홍선표·정우택 교수가 자문하고 김리나 교수가 기획한 국사편찬위원회 편인 ‘한국 문화사’ 시리즈 가운데 미술사 관련 편저들인 『불교미술, 상징과 염원의 세계』(두산동아, 2007); 『그림에게 물은 사대부의 생활과 풍류』(두산동아, 2007); 『근대와 만난 미술과 도시』(두산동아, 2008)는 이러한 분류 방법에 의해 시도된 것이다.

<sup>25</sup> 작품의 수집과 감평 등에 대해서는 홍선표와 박효은, 황정연, 장진성 교수에 의해 일련의 연구가 시도된 바있다.

## 2. 연구 방법과 해석의 다양화

한국미술사학은 조선후기의 古物鑑識과 금석고증학의 전통에서, 일련의 형식적 특징을 다루는 양식사를 비롯한 서구의 근대 미술사학 방법론을 이식하여 인문과학으로 성장하였다. 이에 따라 미술사 연구 고유 영역인 실물 자료 조사와 분석의 수준은 크게 향상되었다. 조형물로서의 작품의 물질적 상태와 형식적 측면을 한층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표면의 斜光照射를 비롯하여 육안으로 파악할 수 없는 극미 세계까지 현미경과 X선, 적외선을 비롯한 여러 광학적 방법을 이용해 조사하는데 까지 이르고 있다.<sup>26</sup> 작품의 양식이나 진위 파악에는 안목도 중요하지만, 질료적·기법적 세부와 심층적 성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데이터를 많이 확보할수록 많이 정확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조사 방법은 확충되고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구 대상물과 성과물의 보존 및 분배와 문화 산업화를 위해 이미지와 문헌 등, 관련 자료와 정보들의 디지털 아카이브와 콘텐츠 라이브러리 구축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박물관·미술관의 기능과 역할도 이러한 측면에서 현실 공간 뿐 아니라, 사이버 공간까지 포함하여 논의의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학문을 고도의 이론적 실천으로 볼 때, 자료 조사 및 분석과 정리의 실증적 수준을 넘어 이론적 틀에서 해석하고 설명할 수도 있어야 한다. 메타 담론적 측면에서 한국미술사학은 거의 이론적 문맹상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학문사적·학설사적 관점을 문제화하거나 언설화하는 경우가 드물고, 회기론이나 장르론은 물론 피니시아(기의)를 관리하는 언어/문자로 번역·서술하기 위해 사용하는 학술적 어휘나 용어의 개념 또는 관념의 역사적 퍼스펙티브 파악에 긴요한 용법사에 대한 논의도 인식도 부진하고 미진한 실정이다. 해석 방법 또한 강단에서 습득한 것을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체제화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희박한 편이다.

인문학적 이해의 특징은 해석의 다양성이다. 연구자가 처한 시대적 상황이나 이념적 관점이 이해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등, 시공간에서 동일하게 객관적인 이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근대 이전에는 해석이 성리학적 교리에 의해 이루어지고 교조화 되어 이와 다르면 斯文亂賊으로 박해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해석은 이론적 체계와 조리에 의해 논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풍부해지고 궁극적인 앎을 지향한다.

미술사학이 '미술'이란 개념의 역사성과 당파성을 규명하고 '미술사학' 그 자체의 제도를 문

<sup>26</sup> 정우택, 「고려불화의 광학적 조사」, 『고려시대의 불화』(시공사, 1997), pp. 31-37; 천주현·이수미 외, 「윤두서 자화상」의 표현기법 및 안료 분석, 『미술자료』74(2006, 7), pp. 81-93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제화하면서 '예술'이란 한정된 영역과 '작품'과 '작가' 중심의 근대적인 틀에서 문화적 의미와 가치를 지닌 시각 이미지 전반의 생산과 중개, 수용 및 작용 등으로 외연과 내포를 확장하게 되면, 연구 방법과 해석도 확대되고 다양화되어야 할 것이다. 시대별 시각문화와 이미지 상황을 해명하는 학문으로, 구미술사학과 신미술사학을 포괄하는 방법론을 모색하는 것과, 재현된 표상성의 기원과 진화를 현실적 관계 뿐 아니라, 동서고금을 함께 사유하는 시야에서의 해석을 도모하는 것이 과제이다. 예술의 고유한 범주로 간주되어 오던 심미성도 예술의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 또는 존재하는 모든 것과 관련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듯이,<sup>27</sup> 다학문적 측면에서 문화학을 비롯하여 이미지의 유통과 해독을 위한 체계적인 분석 및 해석 방법론인 기호학과 해석학, 나아가 인간의 시지각과 심성 및 지능 전반을 다루는 지각학이나 인지과학의 이론과 지식까지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작품/이미지의 환유나 제유, 상징, 우의와 같은 비유적 표현들은 수사학적 이론과 방법을 통해 더 정밀하고 체계적으로 서술할 수 있고, 문인화의 경우 말과 글씨와 그림인 시·서·화가 융화된 텍스트로 분절적=분과적 파악이 아닌 융합 기호학의 관점에서 텍스트 전체의 메시지를 관독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공예품은 재료적 구분에서 기물로서의 상호 텍스트 또는 상호 매체성으로, 문양과 같은 장식 패턴이나 형태의 반복적 표현은 프랙탈 기호학의 지식을 원용하면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듯이 다양한 학제적 사고와 간학문적 방법이 긴요한 것이다.

#### IV. 맺음말

지금까지 한국미술사학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미술사학의 장래를 위해 새로운 확대 발전 방법을 과제로 거론해 보았다. 새로운 방안의 제시 보다는 근대적인 분화시대에서 탈근대적인 융복합시대로의 전환과 디지털 매체의 발달에 따른 지각구조의 변동 등과 같은 변화된 시대적 조건에 대응하려는 문제의식을 개선해 본 것이다. 미술을 '예술'의 한정된 영역에서 시각문화와 이미지문화로 확장해야 하며, 이들 문화는 생명처럼 워낙 복합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기존의 분과적인 체제로는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으므로 학제적인 방법과 통섭적인 지식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올바르게 해석하기 힘들다는 관점에서 언술하였다.

<sup>27</sup> 최준호, 「작품 자체의 해석과 심미적 경험」, 『미학예술학연구』19(2004), p. 352 참조.

이러한 모색과 문제 제기는 문명사의 특정한 단계의 도래와 함께 무엇보다도 한국미술사학의 정립과 확산에 선구적으로 힘쓴 선학들의 노력 및 업적과 한국미술사학회의 50년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후학들이 수행해야 할 한국미술사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한 과제는, 인간의 문화 사회적 활동의 기본 양식에 변동을 초래하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 기술의 발전에 조응하면서 한층 다양하고 풍요롭고 흥미롭고 진전된 연구와 궁극적인 앎을 위한 기존 방법과 새 방법의 포괄적인 재구조화 작업이 아닌가 싶다.

\*주제어(key words) \_한국미술사학(Korean art history), 이미지 문화사(History of image culture), 시각문화(Visual culture), 통섭(Interdisciplinary and cross-disciplinary research/Holistic Knowledge), 방법론(Methodology)

■ 투고일 2010년 9월 10일 | 심사개시일 2010년 9월 12일 | 심사완료일 2010년 10월 21일 ■

## 참고문헌

### 1. 저서

- 佐藤道信, 『明治國家と近代美術-美の政治學』, 吉川弘文館, 1999.
- 小林康夫·松浦壽輝 編, 『イメージ』, 東京大學出版會, 2000.
- 松宮秀治, 『藝術崇拜の思想-政教分離とヨーロッパの新しい神』, 白水社, 2008.
- 홍선표 편, 『동아시아미술의 근대와 근대성』, 학고재, 2009.
- 홍선표, 『한국 근대미술사』, 시공사, 2009.
- Xavier Barral I Altet, *Histoire de l'art*, 1996(吉岡健二郎·上村博 譯『美術史入門』白水社, 1999).

### 2. 학술지 논문

- 김운상, 「이미지학의 정립을 위한 이론적 토대연구」, 『카프카연구』 19, 2008, 12.
- \_\_\_\_\_, 「지각학으로서의 미학-최근의 미학 논의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보충」, 『독일문학』 100, 2006, 12.
- 김홍남, 「서면 리의 『동양미술사』 제5판 출판에 부쳐」, 『미술사논단』 1, 1995, 6.
- 박여성, 「응용인문학의 문화학적 토대를 위한 구성주의적 제안」, 『텍스트언어학』 20, 2006.
- 송효섭, 「문학연구의 문화론적 지평」, 『현대문학이론연구』 27, 2006, 9.
- 신응철, 「문화철학과 문화학」, 『철학탐구』 17, 2005, 12.
- 원승룡, 「상과 그림의 존재론」, 『범한철학』 55, 2009, 12.
- 이상엽, 「문화인문학-인문학의 문화학적 기획」, 『해석학연구』 8, 2001.
- 이선관, 「인문학의 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강원인문논총』 18, 2007, 12.
- 이유선, 「독서와 신경생리학-새로운 혼종적 인문학의 가능성 모색」, 『독일문학』 109, 2009, 3.
- 이준서, 「탈경계의 은유:인터페이스-인문학의 지평 확장을 위한 제안」, 『브레히트와 현대연구』 23, 2010, 8.
- 이즈하라 마사오(出原政雄), 「메이지 일본에 있어서의 '애국심'론의 형성과 전개」, 『한국문화』 41, 2008, 4.
- 임상우, 「역사학에서의 문화적 전환-신문화사 대두의 사학사적 검토」, 『서강인문논총』 14, 2001, 6.
- 천정환, 「문화론적 연구의 현실인식과 전망」, 『상허학보』 19, 2007, 2.
- 최준호, 「작품 자체의 해석과 심미적 경험」, 『미학예술학연구』 19, 2004.
- 한 철, 「이미지, 문자, 권력」, 『뷔히너와 현대문학』 34, 2010, 6.
- 홍선표, 「한국미술사인식틀의 비판과 새로운 모색」, 『미술사논단』 10, 2000, 8.
- \_\_\_\_\_, 「『한국회화사』 재구축의 과제-근대적 학문의 틀을 넘어서」, 『미술사학연구』 241, 2004, 3.
- \_\_\_\_\_, 「동아시아 통합 미술사의 구상과 과제-『동양미술론』과 『동양미술사』를 넘어서」, 『미술사논단』 30, 2010, 6.

洪善杓, 「韓國美術史の研究觀點と東アジア」東京國立文化財研究所編, 『語る現在. 語られる現在:日本の美術史學の100年』, 平凡社, 1999.

후지하라 사다오(藤原貞郎), 「동양미술사학의 형성과정에서 역사관·문화적 가치관」(안재원 역), 『미술사논단』20, 2005, 6.

## 국문초록

한국미술사학이 근대적인 관념과 수법의 한정된 틀을 확장하고 개편하여 융복합시대의 지식 패러다임으로 거듭나기 위한 메타적 방법 모색과 결부하여 그 확대 발전의 이정표를 세우는 데 필요한 과제들을, 연구 시야와 영역의 확장과 연구 방법과 해석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논의한 것이다. 새로운 방안의 제시 보다는 근대적인 분화시대에서 탈근대적인 융복합시대로의 전환과 디지털 매체의 발달에 따른 지각구조의 변동 등과 같은 변화된 시대적 조건에 대응하려는 문제의식을 개진하였다. 미술을 '예술'의 한정된 영역에서 시각문화와 이미지문화로 확장해야 하며, 이들 문화는 생명처럼 워낙 복합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기존의 분과적인 체제로는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으므로 학제적인 방법과 통섭적인 지식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올바르게 해석하기 힘들다는 관점에서 언술하였다. 후학들이 수행해야 할 한국미술사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한 과제는 하이브리드모던의 관점에서 한층 다양하고 풍요롭고 흥미롭고 진전된 연구와 궁극적인 앎을 위한 기존 방법과 새 방법의 抱越的인 재구조화 작업이라 하겠다.

**Abstract**

## Exploring New Methodological Horizons for Korean Art History

**Hong Sun-pyo\***

This paper discusses issues related to meta-methodological exploration in Korean art history, aiming at breaking away from the narrow modern-era framework of theoretical concepts and ideas to make this discipline correspond to the dawning age of interdisciplinary convergence. Concretely, the paper discusses tasks needed for drawing up a roadmap for such a new methodological exploration, with special emphasis on how we can broaden our research perspectives and expand areas of research interests and how we can diversify research and interpretation methods. The paper, however, does not propose specific new directions or methods, but is rather an attempt to pay attention to the need for the discipline of Korean art history to renew and reinvent itself in this chapter of post-modern evolution where we are headed for an age of 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in the face of the sea-changes brought about by the digital revolution. I argue that the concept of art should today be extended from the traditional notion of art to include visual culture and image culture as a whole; that culture, being a complex phenomenon like life itself, cannot be accurately or comprehensively understood through the existing framework with its rigid and narrow concepts; and that cross-disciplinary research and holistic knowledge are indispensable for meaningful interpretations of cultural manifestations. Among the important task for future generations of scholars to shape a new paradigm for Korean art history are to adopt various modern approaches in their research to produce more richly diversified and interesting results and to take methodological stances by restructuring existing methods and integrating new methods.

---

\* Professor of Art History at Ewha Womans University

박은화(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이 글은 첨단 기술과학에 의한 정보화시대, 학문의 융복합 시대, 視文化 시대를 맞아 한국미술사학이 나가야 할 진로와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필자는 인류 문화의 다양한 양상을 반영하는 미술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미술사학은 간학문적이며 다학문적인 속성을 지니는 통섭적 지식이지만 고급 예술과 전통 미술 중심의 한정된 범주를 넓히고 융복합적인 문화학과 인지과학 등의 영역과 연결하여 “문화학적 시각예술”이나 “시각문화사”로 발전시키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제로 먼저 연구 시야와 영역을 확장하여 선사시대에서 근현대까지 포함하는 “온전한 한국미술사”를 재구축하고 회화, 조각, 공예, 건축의 장르별 유형화된 연구 분야를 보다 거시적이고 다양한 관점으로 개편하며, 새로운 문제의식을 지닌 연구 영역과 주제를 창안하고 연구방법과 해석을 확대하고 다양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필자의 이러한 주장과 제안은 한국미술사학계가 지난 50여 년 간 이룬 성과를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고 생각한다.

인문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고 인간의 정신과 삶을 풍요롭게 하는 상상력, 이성, 가치관을 형성하는 기반을 제공하여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필요한 성찰과 비평의 능력을 길러준다. 미술사학은 미술작품을 통해 어떤 시대나 지역, 사회의 문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그 가치를 논하는 학문으로 역사와 전통에 대한 깨달음, 사회 현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인문학의 결정체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질수록 미술사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미술사학이 타학문 분야와 연계하여 “문화학적 시각예술”이나 “시각문화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술사학의 정체성과 독자성이 확립되어야 한다. 논리적인 방법론과 미술품에 대한 면밀하고 객관적인 분석과 구체적인 비교에 의한 연구방법에 바탕을 두는 미술사 연구는 철학, 문학, 일반 역사학 등에서 다루지 않거나 다룰 수 없는 연구 분야나 연구 주제의 확대에 기여할 것이며 이러한 미술사학의 독자성이 타학문 분야에서도 인식되어야만 융복합적, 통섭적 학문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또한 필자가 주장하는 미술사 연구의 메타담론적 측면의 발전을 위해 연구자들이 우리나라 미술사학계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미술사는 시각적인 연구대상을 말과 글로 표현하거나 설명하는 학문임으로 학술적 어휘나 용어의 개념을 통일하고, 외래 용어나 다른 학문 분야의 개념을 정확하게 사용하며 문법에 맞는 한글로 서술하기에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인문학 연구에 필요한 분석적이고 종합적이며 유연하고 깊이 있는 사고를 형성할 수 있으며 다양한 연구 방법과 해석을 도모함으로써 미술사를 “학제적인 방법과 통섭적인 지식으로 연구”하는 확고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